

## 西洋紋章의 象徴性에 關한 研究

— 中世 西洋紋章과 服飾을 중심으로 —

崔 英 玉

安東大學校 生活科學大學 衣類學科

### A Study on Symbolism of Western Heraldry

— Focused on Western Heraldry, Dress and its Ornaments of the Middle Ages —

Young-Ok Choi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Andong National University

(1993. 11. 17 접수)

#### Abstract

Heraldry, which originated from the culture of knights in the 12th century, came to be drawn on shields, and was inherited as a symbol of the family at the end of the 12th century and developed rapidly through the 13th and 14th century. Afterwards heraldry was in great vogue and used in the shields, clothes of men and women, armors, housings and flags. Therefore the citizen class as well as nobles and knights came to possess heraldry. In particular parti-color and impaled coat were accepted in the clothes, and served the dual purpose of status symbol and ornament in the 13th century.

It can be said that the appearance of heraldry on the clothes was typical of the Middle Ages. The origin, generally accepted, was that the crusaders wore the surcots, also known as the cyclases, on the armors to prevent the powerful sun of Syria and dust of deserts, and to prevent the armors from rusting due to moisture. As the surcot was made of white linen or white silk till the beginning of the 13th century, knight's heraldry came to be put on the surcot in order to identify each corps. According as the coat of mail covering all the body was devised, the same heraldry attached on the shield seemed to appear on the clothes of surcot or jupon(afterwards pourpoint) in order to identify the status in the battlefield and tournament.

Heraldry, a system of mark in the 12th century, was used as a symbol of authority of the upper class such as the Royal House, nobles and knights, and may have been mysterious instruments in the Middle Ages. However, in the modern times of the 20th century heraldry has come to be a kind of symbol marks such as badges and banners symbolizing the hallmark of the goods of enterprises, organizations and groups. Heraldry, existing up to now, of the individuals as well a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can be seen as a result of deep-rooted tradition for esthetic appreciation and symbolism for heraldry.

\* 본 연구는 1991년도 대학교수 국비 해외 파견 연구 계획으로 수행되었음.

## I. 序 論

부족사회의 모든 사람이 토템을 모방하여 표식으로 한 것처럼, 또 어느 민족에서나 護符를 휴대하면 신체를 보호받는다고 믿었던 것처럼, 또 동양의 왕족들이 각각의 印章을 만드는데 열중했듯이, 이처럼 사람들은 자기와 자기가 소속된 집단을 상징하는 표식을 필요로 하였으며 중요시여겼다. 이와 같은 필요에 따라 12세기 기사들의 문화와 더불어 시작된 紋章은 독특한 문장문화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문장은 단순한 미적문양에 지나지 않지만, 그 요소 하나하나에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은 이미 拙稿<sup>1)</sup>에서 고찰한 바 있다. 이러한 문장을 나타내는 구성요소로서 문장의 색을 들 수 있다. 문장에 사용되는 색은 3종류로 나눌 수 있다. 즉 첫째 2종류의 금속, 둘째 5종류의 일반색, 셋째 2종류(또는 3종류)의 모피<sup>2)</sup>이다. 이 『金屬』, 『一般色』, 『毛皮』에는 각각의 상징체계가 있다. 예를 들면 銀色은 겸손을 나타내며, 蕙星으로는 月, 恆星獸帶에서는 계좌와 전갈座와 물고기座, 보석으로는 진주, 원소로서는 水에 해당한다<sup>3)</sup>. 방패의 표면에서 이러한 상징은 교대로 경쟁하고, 합하여져, 고도의 정교한 의미를 가진 전체를 낳게 된다. 각각의 가정이나 집단이 가진 이상과 역사등이 이 『신비스런 언어』에 의해 방패 표면상에서 표현되고 있다.

기사의 방패위에 그려진 文樣이나 상징은 전장에서 장식과 식별을 위해서도 필요했다. 또 옛날에 무기는 모두 개인이 소유하였으므로 槍, 劍, 槍旗도 아버지가 사용한 것을 그 아들에게 물려주는 일이 많았다. 따라서 상징적인 紋章이 세습되었다는 것이 통설이다. 그래서 그 紋章은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전해지고 방패나 槍旗 뿐 만아니라, 인장이나 가족의 의복위에도 나타나게 되었다. 이들 紋章은 가문과 소유하는 영토를 나타내었으므로 따라서 권력을 상징하는 표시하고도 해석할 수 있다. 유럽에서는 십자군의 부름에 응하여 각지에서 기사들이 모였다. 그리스도교를 위해 성전에 참가한 명예를 나타내기 위해 무장위에 紋章까지도 갖게 되었다. 십자군 시대 이후 紋章은 보편적으로 사용하게 되었다<sup>4)</sup>.

한편 유럽에서는 방패위에 세습 文樣이 나타나기 훨씬 이전인 9세기 초 칼대제 때부터 군사훈련의 목적으로 전장놀이 형식을 갖춘 오락이 행해졌다. 이것은 11세기

프랑스에서 tournament(馬上槍試合)라는 경기로 시행되었고, 영국에서는 12세기 중순부터 행해졌으며, 세기 말에서는 공식행사가 되었다. 따라서 얼굴을 닳는 헬멧이 고안되어 전장이나 이런 종류의 경기에서 武具위에 紋章이 그려지게 되었다. 13세기 경에서는 방패를 비롯해 안장과 馬衣, 의복위에 문장을 붙여 승패를 나누었다. 동시에 그것은 또 토너먼트의 분위기를 북돋우고, 장식효과를 높이는 데도 한층 도움이 되었음에 틀림없다<sup>5)</sup>.

13세기초에 이 세습 文樣은 「紋章」이라 하여 일정한 규칙하에서 정리되고 조직적으로 다루었으며, 문장기록은 양피지 두루마리 위에 남겼다. 紋章을 관리하는 왕립 사무국 문장원이 있으며, 또 그 중에는 영주가 관리하는 지방의 문장원도 있었다. 여기서 일하는 紋章官이 있으며 이 제도는 15세기까지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존재하였다<sup>6)</sup>. 紋章은 개인뿐 만 아니라 도시와 집단에서도 존재하고, 15세기 이후는 가문의 紋章제도가 없어지고 나서도 이들은 근대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즉 유럽 도시의 紋章은 12, 13세기 이후에 이루어진 것도 있고, 또 19세기에 결정된 것도 있으며, 현대에 와서는 공공건물, 교회, 기, 공문서, 광고물, 의복, 차량, 심지어 구두약에까지 사용되고 있다. 이와 같이 문장은 왕실, 귀족, 기사 등 일부 상류층에서 권위의 상징으로 쓰였던 것이 현대에는 품질보증 기관단체를 상징하는 badge 등으로 symbol mark화 되어 일상생활 속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문장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문장의 변천, 방패와 문장, 문장의 상징성, 그리고 紋章이 중세 복식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문헌 연구를 하므로써 문장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게 하고, 나아가서 문장의 남용을 막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 II. 紋章의 유래 및 변천

유명한 가문의 문장이 전투용 방패나 갑옷등에 묘사된 것은 언제부터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11세기에 만들어진 유명한 tapestry인 Bayeux tapestry<sup>7)</sup>는 윌리엄 征服왕이 잉글랜드 정복에 관한 사항을 묘사한 것이다(도 1). 이 tapestry에는 공격해 올라가는 프랑스兵, 노르만디兵과 이들을 막는 잉글랜드兵의 모습이 상세히 묘사되어 있다. 거기에서 프랑스와 노르만디족의 병사

몇명이 wappen과 같은 印을 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sup>8)</sup>. 이것은 아군인 것을 알리는 극히 간단한 것인데도 눈에 띄는 표시로서 충분하였을 것이다. 이것에 대해 잉글랜드 병사들은 아무런 표시가 없다. 승자인 노르만디와 그 지도자인 윌리엄쪽은 보다 진보된 전투기술을 보여 주었던 것이다.

잉글랜드 정복에 이어 유럽의 병사들은 십자군 원정에 나섰다. 십자군 원정은 1095년부터 1270년까지 약200여년간 계속되었다. 이 운동은 그리스도교의 교세확장을 주목적으로 여기에 인구팽창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봉건 영주들이 자신들의 세력을 과시하기 위해 일킨 것으로, 이 운동에 직접 참여한 십자군들은 동방의 뛰어난 기술로 짠 복지, 견직물, 문직, 금란 등을 유럽으로 가져왔고 직조도 하였다<sup>9)</sup>. 그러므로 십자군 운동은 중세 전성기의 西 유럽과 東方의 이슬람 문화권을 이어주는 다리역할을 한 역사적 의미를 가졌다. 이 원정군을 십자군이라 부른 것은 종군한 사람들이 모두 十字의 標識이 달린 천을 그들의 旗章으로 삼아가슴에 달았거나 깃발에 달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이 기간동안 십자군에 참여한 기사들의 몸차림은 머리에는 닭의 벼형태로 투구장식(crest)을 단 투구는 안면으로부터 頸後頭部까지를 완전히 덮었으므로 겨우 눈과 입주위에 틈이 있었을 뿐이었다. 목아래 부분은 모두 갑옷으로 덮혀 있었고, 특히 정강이와 팔꿈치에는 특별히 만들어진 保護具가 달려 있었다. 정강이 아래는 boots형의 철로 덮어 보호하였다. 오른손에는 둔하게 빛나는 검, 왼손에는 금속으로 테를 두른 방패를 휴대하여 30kg이 넘는 중무장을 하고 말을 탔다<sup>10)</sup>. 이렇게 신체를 완전히 감싸는 복장으로 전원이 灰白色으로 된 갑옷, 투구로 얼굴을 덮었기 때문에 적군과 아군을 쉽게 구별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또 말이 민첩하게 전쟁터를 누비며 뛰어다녔으므로 적군과 아군을 구별하는 것도 어려웠을 것이다. 이와같은 사정에서 紋章은 기사나 제후에게 불가결한 것이 되었다. 따라서 기와 군기의 표식아래 집결될 필요가 있었기에 중복되지 않는 독특한 도안과 색채로 만든 깃발이나 표식이 고안되어 개개인의 認識表로 소유하게 되었다.

이와같이 화려한 戰士인 기사의 등장과 함께 紋章도 세상에 나타나게 되었다. 12세기 초에 이러한 문장은 급속히 유럽으로 퍼져 귀족이나 기사의 상징이 되어 중세 紋章으로 발전을 보게 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紋章은 어디에서나 식별할 수 있는 군기에, 그리고 갑옷과 투구에 표시구로서, 그리고 기사의 생명이라고 할 방패표면에 붙여지게 되었다. 이처럼 전장에서 적군과 아군을 구별하기 위해 귀족가의 군대에게 공통된 표식인 문장을 전원에게 붙이도록 하였다. 또한 사람 한 사람의 기사를 구별하기 위한 개인별 표장도 고려되었다.

이와같이 십자군 전쟁과 더불어 발생된 紋章이 프랑스 및 독일에서 시작된 것은 12세기 중순경이다. 영국에서는 12세기 후기에 紋章이 성립되어 13, 14세기를 통하여 급속한 발전을 보였으며, 紋章에 관한 원칙이 완전하게 수립된 것은 14세기 초였다. 영국에서 紋章문화가 가장 화려하게 꽃피운 것은 Edward 3세(1327~1377)때였다. 그러나 봉건사회가 붕괴되고 기사의 몰락과 방패가 사라진 16세기 후부터는 紋章의 사용은 쇠퇴되어 봉건적 의미로 부터는 유리된 장식적으로 사용되었다<sup>11)</sup>. 19세기 말에는 미술, 공예의 진흥에 따른 미의식의 향상과 더불어 紋章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져 紋章문화의 재생기를 맞이하게 된다. 20세기가 되면서 실리주의적인 사상이 대두되어 특히 제2차 세계대전후는 자치단체, 상공업자의 紋章이 급격하게 증가되어 선전, 광고용인 상업문장시대로 들어가게 되었다.

### III. 방패와 紋章

고대전장에서 방패는 몸을 지키기 위해 필요 불가결한 武具였다. 고대의 여러 종류의 조형작품중에 방패를 휴대한 勇士의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다. 고대로마의 방패는 용사에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었으므로, 그 위에 어떠한 상징을 넣어 그 상징은 개인의 생애를 통해 사용되기도 하였으나, 세습되었다는 기록은 남아있지 않다. 시대가 흘러 12세기 후반의 Bayeux tapestry에는 두루마리식의 그림이야기 가운데 [도 1]에서 볼 수 있듯이 많은 戰士의 방패가 나타났다. 이들의 방패형은 원형이나 가늘고 긴형으로 그 표면에는 다소의 文樣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다시 등장하는 동일인물의 방패에 같은 文樣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만일 중요인물에게 紋章이 있다면 그것이 근대에까지 당연히 남겨져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발견할 수 없다<sup>12)</sup>.」라는 설에 따르면 Bayeux tapestry가 제작된 시대의 방패에는 紋章이 존재하지



[도 1.] Bayeux Tapestry  
(ヨーロッパの紋章, p. 17)

않았다고 생각되며, 만일 존재한다 해도 극히 일부 특수한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11세기와 12세기의 印章<sup>13)</sup>의 문양에서 볼 수 있는 당시 방패형은 윗쪽이 둥글고 아래쪽이 뾰족한 긴형으로, 서있는 사람의 머리부터 발까지 덮을 정도였다. 「방패에는 가죽끈이 달려 있어 목에서 드리우고 걸을 때에는 왼쪽어깨 위에 걸쳤다. 방패를 나무로 만들어 그위에 가죽으로 덮고 금속테를 둘렀다. 금속테를 정리하려고 정사키기 위해 표면 중앙에 돌기물이 있으며, 文樣은 그 돌기물에서 방사선상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았다. 이 돌기물이 붙은 방패가 인쇄위에 가장 마지막으로 보이는 것은 1195년이다.<sup>14)</sup>

12세기말부터 방패형은 삼각형에 가까운 길이가 짧은 것으로 되었고, 구조도 바뀌어 방패 표면의 돌기물도 없어지게 되었으므로, 文樣을 자유로이 구사할 수 있게 되었다. 「紋章과 관계가 있는 文樣이 들어간 방패가 인장위에 나타난 것은 1170년 이후이며 1210년 이후에는 모든 방패위에 紋章이 나타났다.<sup>15)</sup> 따라서 방패위에 紋章을 넣기 시작한 것은 인장위에 紋章을 넣은 기록과 비교해 다소 다르지만 12세기 말경이라 추측할 수 있다. 그 가장 빠른 예는 [도 2]와 [도 3]에서 볼 수 있는 「lion」을 나타낸 방패로 잉글랜드 최고의 문장은 헨리2세의 서자인 솔즈베리 백작 윌리엄 롱게페(William Longespée, Earl of Salisbury, 1226년 사망)가 사용한 ‘靑色바탕에 6마리의 금사자’를 그린 방패를 들 수 있는데 이것은 지금도 솔즈베리 사원에 있는 그의 묘지에서 볼



[도 2.] William Longespée Earl of Salisbury (ヨーロッパの紋章, p. 18)



[도 3.] Count of Anjou (Boutell's Heraldry, p. 5)

수 있다<sup>16)</sup>.

이 방패는 헨리2세의 아버지이며, 윌리엄에게는 조부인 안주백작 제프리 프란타지니트(Geoffrey Plantagenet, Count of Anjou, 1113~1151)로부터 선물받은 것이다<sup>17)</sup>. 안주백작 제프리는 헨리1세의 딸과 결혼했는데 헨리1세는 사위인 안주백작 제프리에게 ‘6마리의 사자’를 묘사한 쉐단트를 선물로 보냈는데, 제프리는 이 쉐단트와 인연을 맺어 청색바탕에 6마리의 금색사자의 방패를 사용하였으며, 그 증거로 이것이 그의 묘지에 선명히 남아있다<sup>18)</sup>. 그 밖의 紋章도 1170년대 후반부터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다.

중세에는 紋章을 나타낸 기사 방패가 그 기사의 신분과 가문을 상징하였다. 반면에 「아더왕의 죽음」 가운데에는 「신분을 감추기 위해서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않은 방패를 이용하였다.<sup>19)</sup> 라는 조항으로 미루어 볼 때 반대로 신분을 감추기 위해서도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경애하는 귀부인의 紋章도 즐겨 사용했다. 기사 랑스롯트는 「이제까지 어떠한 장소에서도 기니뵈아(아더왕의 妃)의 紋章이외의 것을 붙인 적은 없었다.<sup>20)</sup> 라는 것에서 紋章이 갖는 의미와 감정의 폭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15세기경부터 甲冑가 plate armor로 변화됨에 따라 전장에서 무구로서의 방패의 역할은 불필요하게 되고, 마상시합이든가 의식이나 제전에서만 방패가 사용되었다<sup>21)</sup>. 방패의 형태 바뀌어 무게가 가벼워졌다. 그리고 전통적인 형식에서 분리되어 예술가나 방패 소

지자의 기호에 맡겼으며, 16세기에는 무기의 발달로 방패의 존재 이유가 없어졌으므로 무장의 일부로서의 방패는 자연히 소멸되었다<sup>22)</sup>.

IV. 紋章의 象徴性

紋章은 무엇에서 유래된 것일까? 그 중에는 아주 오래된 시대부터 무엇인가의 상징으로서 사용되고 있었던 무늬가 문장으로 계속 남아있는 경우도 많다. 고대의 상징적인 것은 후세인들 사이에서도 특별한 감정을 주었다고 생각된다. 또는 작은 역사적사건이나 명예스런 업적이 紋章이 되는 것도 있으며, 姓名自體를 紋章화한 것도 적지 않다.

예를 들면 늦쇠로 만든 기념상에 의하면, [도 9]에서 볼 수 있는 Sir Roger de Trumpington의 기념상<sup>23)</sup>의 紋章은 「藍色바탕에 2개의 황금색 trumpet」이며 그것은 trumpets와 trumpigton과의 관계를 고려한 것이라고 수궁할 수 있다. 또 Sir Robert de Septvans像의 紋章<sup>24)</sup>은 「7개의 키」의 紋章이며 sept는 불어로 7, van는 농가에서 사용하는 키를 의미한다[도 10 참조].

문장에 나타난 문양은 대단히 방대하므로, 本考에서는 동물문양으로 사자와 독수리를 紋章으로 사용한 예와 사자와 독수리의 紋章상의 자세를 중심으로 고찰하였으며, 이들의 상징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拙稿<sup>25)</sup>를 참고하기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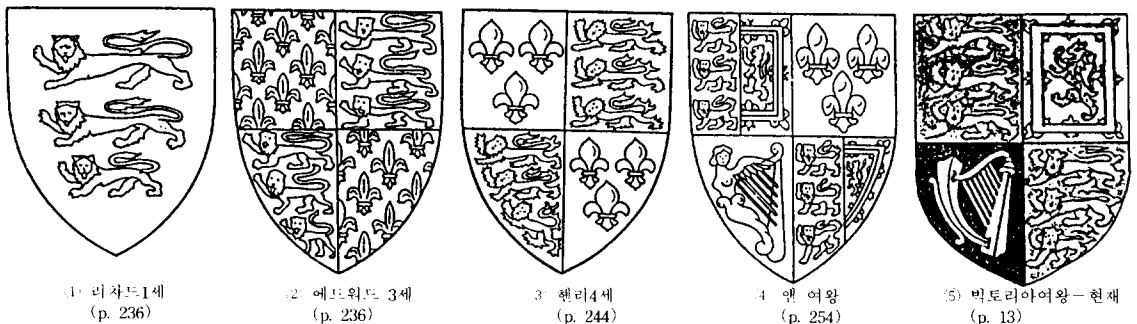
1. 사자문장

서양의 문장도형에서 사자, 독수리, 백합화는 3대 char-

ge라고 부를 만큼 가장 많이 사용되는 도형인데, 그 중에서도 사자문양의 사용 빈도수가 가장 높으며 百獸의 王으로서 문장 초기의 시대로부터 여러왕과 영웅의 문장으로 사용되어 왔다. 사자는 영국, 스코틀랜드, 덴마크, 네델란드(13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감), 벨기에(13세기부터),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스페인, 헝가리,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등 유럽왕가의 문장으로 많이 사용되어 왔다<sup>26)</sup>. 따라서 사자문양 없이는 紋章에 관해 이야기 할 수 없다 할 정도이다.

赤色바탕에 3마리 사자문양은 영국왕가의 紋章인데 그것은 리차드 1세의 치세(1189~1199)이후 부터이다. 그 기원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지만 「윌리엄」1세와 2세(1066~87), 헨리1세(1100~35)는 한마리의 사자를 記号으로 사용하였다.<sup>27)</sup>

방패위의 文樣이 세습적인 것이 되어 후세에 계승된 기원, 즉 紋章의 기원은 앞서 서술한 것처럼 안주 백작 제프리(Geoffrey, Count of Anjou; 헨리2세의 아버지, 헨리1세의 양아들)에 의한 것이라는 것은 문장연구자 모두의 일치된 의견이다. 헨리1세가 騎士의 작위를 받을 때, 작은 황금으로 된 사자가 달린 방패와 황금 사자 수놓은 boots를 받았다. [도 3]에서 볼 수 있듯이 그는 사자문양이 달린 방패를 갖고 모자에도 1마리의 사자를 붙이고 있다. 「헨리1세의 자손과 서자 모두는 1마리, 또는 그 이상의 사자를 紋章안에 포함시키고 있다.<sup>28)</sup> Geoffrey의 손자 리차드 1세의 紋章에는 3마리의 사자가 보이며 [도 4 참조], 이것이 그후 영국왕가의 紋章이 되는데 왜 3마리가 되었는지, 그것이 혼인에 의한 것인지, 예술적 감각때문인지는 불분명하다. 리차드 1세로부터 에드워드 3세까지는 赤色 바탕에 金色사자 3마



[도 4.] 영국왕가의 문장 변천(ヨーロッパ의 紋章, Royal Heraldry). (C. & F., p.321)

리가 나타나 있는데 [도 4-①], 에드워드 3세때 프랑스 백합화가 더해져 방패표면(field)은 4분할되었다[도 4-②]. 다시 헨리4세 때 프랑스 백합화는 3개가 되었고 [도 4-③], 이후 엘리자베스 시대까지 3마리의 사자 문장과 백합화가 3개인 문장의 4분할은 영국왕가의 문장을 나타내었다. 그후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의 문장도 덧붙여 복잡해졌으며 [도 4-④], 백합화는 19세기에 페어내어 현재 영국왕가의 문장인 [도 4-⑤]처럼 되었다<sup>29)</sup>.

또 고대부터 왕좌의 의자 팔걸이에는 사자의 머리가 장식된 것이 많다. 14세기 경부터는 발밑에 2마리의 사자를 배치하는 습관도 있었다. 사자는 12궁중에 7월에 해당된다. 예를 들면 13세기의 아미안 사원의 서문 왼쪽 입구 좌대에는 12궁에 근거된 曆을 나타낸 浮彫를 볼 수 있는데, 7월경에 1마리의 사자 모습이 새겨져있다<sup>30)</sup>.

12세기말 부터 13세기의 사원에는 그리스도교의 교리를 도해하기 위한 도상적인 cycle을 만들어 「美德과 惡德」을 상징하여 인간의 행동으로 나타내고 있다. 거기서 사자는 지배와 용기의 의미를 갖는다. 그 예로서 파리 노트담 사원 서측 중앙입구의 좌대의 부조에는 12가지의 美德과 惡德 각각에 대해 나타나 있다. 사자는 미덕의 하나로 「용기」를 상징하며 무장한 용사가 사자 문양이 달린 등근 방패와 검을 갖고 있다. 이것에 대한 악덕으로는 토끼에 놀라 검을 떨어뜨리고 도망가는 사람의 모습으로 「겁장이」를 나타내고 있다<sup>31)</sup>. 사자는 왕과 지배자, 용기있는 사람의 상징으로 깊은 근거가 있는데, 앞서 예를 든 것으로부터도 상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직접적으로는 영국 왕가와의 관련을 연상시키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 2. 독수리 문장

百獸의 왕인 사자에 대해 百鳥의 왕인 독수리(鷲)도 문장에 많이 사용되는 것 중의 하나로 유럽대륙의 문장 특히 독일, 오스트리아, 제정 러시아, 폴란드의 문장에서 많이 볼 수 있다.

독수리 motif는 고대로마의 문헌가운데 황제의 궁기로서 등장한다. 예를 들면 타키투스의 연대기중에서는 「여러나라의 군인은 각각의 鷲旗, 즉 3개의 鷲旗를 한 개의 장소로 모았다.」 「적의 약탈품 가운데 잃어버린 一車團의 鷲旗를 발견했다.」<sup>32)</sup> 등의 기술을 볼 수 있다.

당시 鷲旗는 도금된 창끝에 날개를 펼친 독수리 상을 놓은 듯 하다<sup>33)</sup>는 것도 후세의 연구자가 서술하고 있다. 독수리는 고대 로마에서 뿐 만 아니라, 프랑크왕국을 통일한 「칼 대제도 symbol mark로 독수리를 사용했다」<sup>34)</sup>. 또 독수리가 황제의 mark로서 널리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있는 것은 중세의 「아더왕」의 이야기 중에서도 그 예를 볼 수 있으며, 아더왕의 기사들이 로마군을 정벌하는 전장에서 「꼭대기에 독수리를 장식한 황제용 천막」을 발견했다<sup>35)</sup> 라는 기술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유럽 사람의 마음 가운데 독수리는 황제의 상징인 독수리, 로마의 독수리, 프랑크의 독수리, 그리스도교에 있어서의 독수리와 같은 여러가지 다양한 의미를 낳고 있다고 생각된다.

## 3. 사자와 독수리의 紋章學상의 표현

다음에 이들 motif가 紋章상으로 어떻게 표현되는지 사자와 독수리의 예를 통해 그 표현과 造形의 모습도 관찰해 보기로 하겠다.

### 1) 사자의 문장학상의 표현

먼저 사자의 자세에 대해 고찰해보면, 사자의 자세는 일정한 것이 아니라 여러가지가 있어 문장학상 사자의 자세로 분류 정리되며, 그 자세마다 특정한 명칭이 붙여져 있다. [도 5]는 그 기본형인데 그 구성은 다음과 같이 사자머리의 방향과 몸의 자세로 구성되었다.

#### (1) 머리의 방향

- Guardant - 정면 향하기.
- Reguardant - 뒤돌아 보는 자세<sup>36)</sup>.

#### (2) 한쪽다리(뒷발)로 선 자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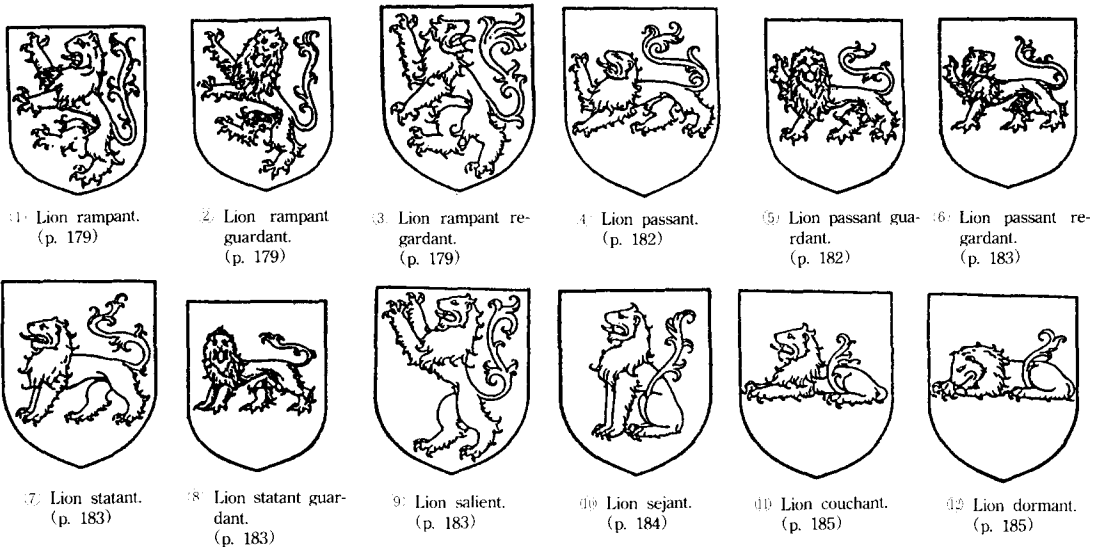
- Rampant - 머리는 방패의 dexter쪽으로 묘사되어 있고, 꼬리가 있으며 한 발만 닿아 있고 세발은 들고 서 있는 사자. 가장 특징적인 자세로 라이언이라 하면 이 ‘램펀트 사자’를 뜻한다<sup>37)</sup> [도 5-①].

: rampant guardant - 위와 비슷한데 정면을 바라보는 자세 [도 5-②].

: rampant reguardant - 위와 비슷하지만 sinister를 향한 자세<sup>38)</sup> [도 5-③].

#### (3) 걷는 모습

- Passant - 머리는 dexter를 향하고 있으며 꼬리는



[도 5.] 사자의 자세(A Complete Guide to Heraldry)

뒤로 하고, 오른쪽 앞다리를 들고 걷는 모습 [도 5-④].

: passant guardant - 정면을 바라보는 모습 [도 5-⑤]. 자세는 원래 'a leopard' (영국의 적색 세마리 레오파드)에서 유래<sup>39)</sup>.

: passant regardant - sinister를 바라보는 모습<sup>40)</sup> [도 5-⑥].

(4) 일어선 자세

- Stantant - 머리는 dexter를 향하고 4발로 선 사자, 꼬리는 위로 올라간 모습<sup>41)</sup> [도 5-⑦].

: stantant guardant [도 5-⑧] & regardant : 앞과 동일<sup>42)</sup>.

- Salient - 머리는 dexter로 향하고 2발로 선 사자, 꼬리는 위로 향함<sup>43)</sup> [도 5-⑨].

(5) 앉은 모습

- Sejant - 머리는 dexter로 묘사되어 있으며, 앞발을 세우고 꼬리는 뒷발 사이에서 나와 꼬리 끝이 위로 세워진 모습<sup>44)</sup> [도 5-⑩].

- Couchant - 머리는 dexter로 향하고 있으며, 기지개를 켜는 형상으로 앉아 있는 모습 [도 5-⑪].

- Dormant - 앞발 사이에 머리를 놓고 잠자는 모습<sup>45)</sup> [도 5-⑫].

이밖의 문장으로 몇개의 사자 도형이 작은 형상으로 그려진 것을 'lioncels'라 부른다<sup>46)</sup>. 'a demi-lion'은 꼬리의 털만 보이고 가슴 이하가 제거된 상체만의 사자의 모습이다<sup>47)</sup>.

사자 이외의 猛獸類, 혹은 龍과 같은 架空의 동물에 대해서도 사자의 기본형이 적용된다<sup>48)</sup>.

그런데 [도 5]에서 보면 대부분의 사자는 dexter로 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기본형이기 때문에 dexter로 향한 것이기도 하지만 dexter가 방패에서 優位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머리와 몸이 모두 정면을 향하고 있는 것 이외에 동물의 머리는 dexter, 꼬리는 sinister로 향하게 하는 것이 원칙적인 도형이며 문장에 등장하는 동물류를 비롯하여 배등은 모두 dexter로 향하게 하는 것이 원칙이다<sup>49)</sup>.

왕가에서 사용한 방패 이외에 처음으로 나타난 사자는 1170년 프란도르 백작의 기마 모습을 새긴 인장위에 lion rampant, 1189년 이후의 보만백작의 인장에도 lion rampant. 그러나 1178년의 소완스백작의 인장에는 lion passant, 1199년 오벨류백작의 인장에는 two lions passant와 같이 초기의 紋章에도 그 종류를 볼 수 있다<sup>50)</sup>.

안주백작 제프리의 방패에는 黄金의 lion rampant가 보이지만 [도 3], 그의 손자 리처드 1세의 紋章은 적색 바탕에 금사자 3마리의 lion passant guardant로 [도 4], 이것이 그후 왕가문장으로 되었다는 것은 이미 설명하



① Eagle displayed. (p. 237)



② Eagle displayed with wings inverted. (p. 237)



③ Double-headed eagle displayed. (p. 237)



④ Napoleonic eagle. (p. 238)



⑤ Eagle's head (p. 239)



⑥ A pair of wings. (p. 239)

[도 6.] 독수리의 자세(A Complete Guide to Heraldry)

었다.

개인의 문장으로는 초기에는 lion rampant가 특히 많지만, 영국왕가와 관련 되어 lion passant가 증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전체로는 도시의 紋章도 포함하여 lion rampant가 많은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사자문장에 대한 몇가지 형에서 영국왕가와와의 관련을 느낄 수 있다. 그 밖에 옛 영주의 紋章과 상징에 사자의 紋章이 많았던 바로부터 도시의 紋章에서도 그들을 채택한 경우가 많았을 것이라고 상상할 수 있다. lion rampant도 lion passant도 13세기 경까지 사자의 꼬리가 복잡하게 변화되어 묘사되었으며, 또 열린 입으로부터 혀가 보이도록 되었다. 16세기 이후의 것은 design면에서도 변화를 보여 갈기와 꼬리의 표현에서 뿐 만 아니라, 머리에 冠을 얹고 목에 목장식등을 붙여, 그 시대의 예술양식에 따라 사자의 모습도 같이 변화되고 있는 것은 이미 拙稿<sup>51)</sup>에서 고찰한 바있다. 이처럼 16세기 이후부터 紋章적인 것을 무시한 여러 종류의 자세가 사용되었다.

2) 독수리의 문장학상의 표현

다음에 문장위에 나타난 독수리의 모습을 보면 문장상의 원칙은 사자와 비슷하지만 독수리 특유의 자세와 또 역사적인 도형도 있다.

독수리 자세의 기본형은 [도 6]의 [①, ②, ③]처럼 3종류로 모두 몸은 정면을 향하고 있으며, 날개를 구부리지 않고 활짝 펼친 형은 'eagle displayed'<sup>52)</sup>라 부른다[도 6-①]. 이것에 대해 날개를 반쯤 편 즉 구부러진 형은 'eagle displayed with wings inverted'<sup>53)</sup>라 하며 [도 6-②], 날개를 활짝 펼친 雙頭的 독수리는 'double headed eagle displayed'<sup>54)</sup>라 한다[도 6-③].

독수리 머리의 방향은 dexter로 향하는 것이 원칙이며 단순히 eagle displayed라 하면 머리를 dexter방향으로 그리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도 예외가 있어 sinister로

머리를 향한 것이 있는데 그 가장 유명한 것이 황제 나폴레옹 문장의 독수리이다. 이와 같이 머리를 반대 방향(sinister)으로 묘사한 독수리를 영국에서 문장학상으로 'An eagle displayed with wings inverted, the head to the sinister, standing upon a thunderbolt or'(황색 천둥번개를 밟고, 머리는 왼쪽으로 향한, 날개를 반쯤 편 독수리)라고 하며, 이것을 Imperial eagle이라고도 부르는데<sup>55)</sup>, 독수리 발에는 [도 7-④]에 나타난 것처럼 우뢰와 번개를 상징하는 雷光을 밟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독수리 모습으로는 雙頭와 單頭가 있으며 그 중에도 왕관을 얹고 있는 것도 있는데, 독수리 자세는 특별히 변화가 없으며, 입을 열고 예리한 혀를 내밀고 날개와 양다리를 좌우대칭으로 펼친 자세가 일반적인 도형으로 나타나 있다<sup>56)</sup>. 雙頭的 독수리는 신성로마제국의 독수리 [도 7]로 알려져 있지만, 반드시 신성로마제국의 문장에만 한한 것이 아니고 오스트리아 황제, 러시아 황제의 문장이 모두 雙頭的 독수리이다. 단지 차이점은 신성로마 황제의 것은 [도 7]에서와 같은 後光(nimbus)이 양쪽 독수리의 머리부분<sup>57)</sup>에 있다는 점이 다르다.



[도 7.] 쌍두의 독수리(西洋紋章大圖鑑 p. 187)



앞서 사자의 문장에서와 마찬가지로 문장의 charge (방패 가운데 묘사된 도형)로 동물의 머리, 다리, 꼬리 부분 같이 신체의 부분 혹은 신체의 반을 묘사한 것이 많다. 독수리의 경우는 [도 6-⑤]에서 볼 수 있듯이 머리와 다리도 있지만 [도 6-⑥]처럼 날개만을 charge로 한 것이 압도적으로 많다. 독수리 날개는 charge 뿐만 아니라 투구장식(crest)에도 많이 보인다.

유럽 도시의 紋章에서는 날개가 하나인 독수리 의장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많은데, 이들 도시에서 공통된 점은 고대로마와 신성로마제국과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로마, 카르타고 전쟁에서 이탈리아의 팔레르모는 독수리문장을 사용했다. 칼 대제가 머물렀던 성이 있으며, 또 중세를 통해 로마 황제에게 통치 받았던 독일의 아헨, 13세기에 황제의 마을로 된 빈, 독일의 뤼벡, 프랑크푸르트등에서는 독수리紋章이 있다. 더욱 빈은 합스부르크家の 프레드리크3세에 의해 15세기에 黑色 바탕에 黄色의 雙頭독수리를 紋章으로 하였다. 체코의 브레노는 17세기에 합스부르크家の 페르디난드 3세의 雙頭의 독수리를 첨가했다<sup>58)</sup>.

색은 상술한 크레프스와 빈에서는 黑色바탕에 黄金 독수리를 배치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白色이나 黑色 독수리가 많다. 조금 다른 색으로는 포츠담이 15세기에 赤色독수리를 사용하였다. 19세기에 새로운 紋章을 성립시킨 독일의 크로닝겐에서는 다른 도시와 다름없이 검은 독수리를 사용하고 있다<sup>59)</sup>. 이 도시의 紋章을 통해서 유럽인이 중세 도시의 역사에 대한 긍지를 느끼며, 그것을 널리 전하려는 유럽문화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

### 3) 역사적인 독수리 도형

역사적인 독수리 도형은 다음과 같다.

：페르샤—B.C. 5세기경 페르샤에서 군대 기치의 문장으로 독수리를 사용하였다. 크세노폰(Xenophon 443-357B.C.)은 군대 행진 때 날개를 편 금 독수리 깃발을 대열 앞의 창에 매달았다<sup>60)</sup>.

：이집트—이집트인들은 일찍부터 독수리 문장을 사용하였다. 기원전 3세기의 마케도니아왕, Ptolemy Soter 치하에서 사용했다<sup>61)</sup>.

：로마공화국—기원전 2세기 경에 로마 공화국의 엠블럼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여 기원전 104년, 마리우스 제2대 집권관 기간동안 군대 기치에 사용되었다. 날개를 펼치고 쥘피터의 번개를 움켜쥐고 있는 독수리 문장은 행진 때 긴 깃대에 고정시켜 보병대의 마차에 달았다<sup>62)</sup>.

：로마제국—왕정 하에서 로마 제국의 상징으로 사용되었다. 쌍두의 독수리는 신성로마제국의 상징으로 채택되었으며, 이것은 동서 로마제국에 대한 통치권의 상징으로 여겨지게 되었다<sup>63)</sup>고도 하며, 혹은 쌍두의 독수리는 머리가 두개인 한마리의 독수리가 아니라, 2마리의 독수리가 머리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고 날개는 서로 겹쳐진 모습일 것이라는 설도 있다<sup>64)</sup>.

：비잔틴—328년에 제국의 수도가 로마에서 비잔틴으로 옮겨지면서 독수리 문장은 그대로 옮겨져 비잔틴 제국의 문장이 되었다. 동, 서 제국에서 좌우를 바라보는 雙頭 독수리가 사용되었다<sup>65)</sup>.

：러시아—러시아 제국에서는 15세기가 되어서 독수리를 사용하였다. 모스크바의 군주인 Ivan 3세는 터키인에게 사형당한 비잔틴의 마지막 황제의 조카딸과 결혼을 했다. 1453년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된 이후 이반은 자신을 부인의 권리로 비잔틴 제국의 후계자로 생각했다. 그래서 그의 문장으로 비잔틴제국의 독수리를 채택했다<sup>66)</sup>.

：신성로마제국—샤를마뉴가 800년 크리스마스때 로마에서 교황 레오 3세에게 신성로마제국의 왕위를 받은 후, 로마 시저의 계승자임을 의미하는 독수리(單頭)를 채택했다. 1147년 콘스탄티노플을 방문해서 쌍두 독수리를 본 후 제국 문장으로 이를 채택했다. 초기의 모습은 오토 4세의 문장으로 매튜가 그린 그림에서 볼 수 있다<sup>67)</sup>.

：독일과 오스트리아—독일과 오스트리아의 황제들은 신성로마제국 황제의 쌍두 독수리를 사용하였다<sup>68)</sup>.

：프랑스—1804년 나폴레옹은 프랑스 제국의 상징을 그의 문장에 재현시켰다. 부르봉 왕조의 지배하에서 잠시 사라졌지만 1852년 나폴레옹 3세때 다시 사용되었다<sup>69)</sup>.

：미국—미국에서는 독수리를 자유와 용기의 상징으로 사용하였다<sup>70)</sup>.

## V. 中世 服飾에 表現된 紋章

중세 귀족과 기사들 사이에 유행된 문장은 방패, 갑옷, 투구와 같은 군복에서 뿐만 아니라 그들이 착용한 의복 위에도 나타나게 되었다. 따라서 기념상(monumental brass)에 나타난 紋章과 의복, 습紋(impaied coat)과 多色配合(parti-color)에 대해 먼저 설명한 다음 남자복식과

여자복식에 나타난 紋章에 대해 고찰하기로 하겠다.

1. 紀念像에 나타난 紋章과 의복

13세기 경부터 교회, 사원에는 기사와 귀족 성직자들의 brass로 만든 기념상이 남아있는데 이들을 통해 당시 기사, 귀족, 성직자, 여성들의 모습과 복장을 알 수 있다.

초기의 기사의 모습은 chain mail hauberk(쇠사슬 갑옷)라는 甲冑위에 surcot를 입고 방패를 휴대하고 있는데 방패위의 문장이 그대로 쉬르코 위에 나타나게 되었다.

예를 들면 영국에서 현존하는 가장 최초의 기념상은 1277년의 Sir John D'Aubernoun의 像<sup>71)</sup>으로서 쇠사슬 갑옷을 입고 있는 모습이다[도 8]. 그의 문장은 '청색 바탕에 황금색 chevron'으로 그의 방패위에 나타나 있다.

그의 머리는 hauberk<sup>72)</sup>에 연결된 쇠사슬 두건으로 보호되어 있고, 그의 손은 쇠사슬 갑옷에 연결된 병어리 장갑으로 감싸져 있으며 손목에서 끈으로 단단히 묶여져 있다. 다리는 긴 chausses 또는 mail stocking을 입었는데 무릎은 정교하게 장식된 poleynes<sup>73)</sup>로 보호되어 있다.

갑옷위에는 리넨으로 만들어진 surcot를 어깨에서 무릎 밑까지 걸쳤는데 무릎 앞쪽부분은 사선으로 잘라낸 듯하다. surcot의 허리에는 girdle을 묶었다. 발밑에 휴식하는 사자가 물고 있는 창위의 깃발에서도 기사의 문장을 볼 수 있다.

두번째 탁월한 예는 [도 9]의 1289년의 Sir Roger de Trumpington<sup>74)</sup>의 像으로 그는 상술한 기사의 모습과 유사하다. 그러나 다른 점은 그의 머리에서 girdle까지 chain으로 연결된 커다란 heaume<sup>75)</sup>이 있으며, 목은 ailettes(어깨보호장치) 또는 장방형 plate가 어깨 위에 고정되어 있어 어깨와 목을 보호하고 있다. 또한 발밑에 있었던 사자가 개로 바뀌어 있으며 기가 없다. 방패는 몸에 대해 둥근 곡면을 이루고 있는 점이 다르다. 이 像에서 문장이 방패는 물론 ailettes위에 그리고 칼집위에도 4번이나 반복되고 있다. 이 기사의 문장은 '청색 바탕에 crusily<sup>76)</sup>와 2개의 황금색 트럼펫'으로 장식되어 있는데 위쪽에 장자의 부호인 기둥이 5개인(5points)label이 놓여 있다.



[도 8.] Sir John D'Aubernoun, 1277 (European Arms and Armour, p.98)



[도 9.] Sir Roger de Trumpington, 1289 (European Arms and Armour, p.100)



[도 10.] Sir Robert de Septvans, 1305 (Boutell's Heraldry, p.22)



[도 11.] Sir Williams de Aldeburge, 1360 (A Complete Guide to Heraldry, p.53)

Sir Robert de Septvans(전술한 Septvans)<sup>77)</sup>는 1305년 [도 10]에서 처럼 그가 입는 surcot, 양어깨의 ailettes에 모두 7개의 키 문장이 들어가 있으며, 방패에도 같은

문장이 들어간 것을 볼 수 있다.

다음의 예는 1360년 Sir William de Aldeburge 像<sup>78)</sup>으로 머리에는 bascinet<sup>79)</sup>를 쓰고 넓적다리 위까지 오는 hauberk 위에는 그이 문장이 장식된 jupon을 입고 있다[도 11]. 그런데 scallop된 쥘뿔단 아래로는 hauberk의 쇠사슬이 레이스처럼 늘어져 있다. 이 기사자의 문장은 '청색 바탕에 3개의 황금색 세잎모양의 작은 십자형 사이에 가장자리가 톱니모양인 은빛 가운데 띠'로 되어 있다. 기사자의 팔은 vambraces<sup>80)</sup>로 보호되어 있고, 가운데로 모아진 두손은 gauntlets<sup>81)</sup>를 끼고 있다. 넓적다리는 cuisses(강철 plate로 넓적다리 가리개)로 덮혀 있다. 발에는 박차가 부착된 길고 끝이 뾰족한 soleret를 신고 있다.

감옷위에 jupon을 입은 또 다른 예로서는 웨스턴민스터 사원의 Stephen교회 동쪽 벽면에 영국의 Edward 3세의 1355년 경의 像을 들 수 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성모에게 기도를 드리는 모습으로 은색 helmet, 금도금된 감옷과 왕관, 감옷위에는 문장을 넣은 jupon을 입고 있다. 그의 jupon의 문장은 왕가의 문장으로 '적색 바탕에 금색사자'로 묘사되어 있다. 에드워드 3세의 아들(一名 Black Prince)은 전장에서 항상 黑裝을 하였으므로 黑太子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되었다<sup>82)</sup>. 像에서의 그의 武裝은 父와 거의 같이 jupon에 紋章이 그려져 있으나[도 12]처럼 쥘뿔 위쪽에 「長子の 符號」인 은색 lable이 덧 붙여져 있다. 그후 은색 라벨은 황태자의 부호가 되었다<sup>83)</sup>.

흑태자의 묘는 캔터베리 교회에 있는데, 거기에는 그의 상과 helmet과 방패가 남겨져 있다. 상은 紋章이 들어간 jupon을 입고 helmet에는 사자 투구장식이 달려있다. 또 「그가 입었던 실물인 jupon이 여기에 보존되어 있는데, 그것은 靑色과 深紅色의 벨벳으로 만들었으며, 백합화와 사자는 금사로 자수를 놓았다.»<sup>84)</sup>

또 귀부인의 cotte와 cotehardie, surcot-ouvert, mantle 등의 의복에도 紋章이 장식된 예가 많다. Marguerite de Quincy 백작부인의 1233년의 인장에는 菱形 紋章이 들어간 surcot가 있다<sup>85)</sup>. 또 샤프르트르 사원 남쪽창에 있는 standgless의 한 곳에는 중앙창에 聖母子의 立像을, 그 양쪽창에는 예언자가 사도를 어깨에 태운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각각의 창밑에는 이 스탠드그래스를 기증한 禿家의 紋章과 그 집의 부인과 딸이 같은 문장이 들어간 의복을 입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sup>86)</sup>.

紋章을 의복위에 나타낼 때는 mantle이나 jupon등의

표면전체에 그 의장을 확대시켰다. 색상은 金色이나 赤色이 대부분으로 의복위에 가문의 예의법절을 나타냄과 동시에, 눈부시게 호화스러웠을 것이다.

## 2. 合紋(impaied coat)과 多色配合(parti-color)

紋章의 合紋은 아버지와 어머니쪽의 양가의 문장을 하나의 방패속에 넣은 것으로 중앙 수직선을 경계로 좌우에 배치하는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각각의 紋章을 세로로 반씩 나누어 조합하는 것도 있다. 좌우 2분할하는 것 이외에 상하좌우로 4분할하여 부부의 紋章을 서로 교차하도록 배치하는 방법도 있는데 영국왕가의 紋章이 이것이다[도 4 참조].

상이나 chausses에 13세기 경부터 다색배합(parti-colored) 방법이 도입되었다. parti-color는 의복을 세로선으로 반 갈라서 대조되는 색으로 장식한 것이다. 예를 들면 좌우 쇼스의 색을 달리하거나, cotte의 좌우에 색과 文樣을 달리하는 것이다. 合紋과 parti-color와 어느쪽이 선행되었는지 여기서는 논하지 않겠지만, 양자가 서로 영향을 미쳐 유행되었다는 것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다. 여성의 紋章에 合紋方法이 자주 받아들여져서, 보통 착용자쪽에서 보아 우측(dexter)에 夫의 紋章, 좌측(senister)에 父, 즉 친정아버지의 紋章을 배치시킨 것이 많았다. 이것을 cotehardie 나 surcot위에 나타내면 앞 중심에서 서로 만나게 된다. 또 mantle 위에서는 3/4원형안에 각각의 紋章이 2번씩 반복된 예도 있다[도 21 참조].

여성의 의복에서 紋章을 표현하는 경우 cotte와 mantle을 겹쳐 착용하는 경우에는 cotte에 친정의 紋章을, mantle에는 夫의 紋章을 나타내는 것도 있었다[도 18 참조].

父와 子의 紋章을 구별하기 위해 전술한 에드워드 3세와 흑태자의 경우 장자의 부호로서 銀色 라벨을 붙였다[도 12 참조]. 그 이전에도 어떤 부호를 가하기도 했으며, 紋章의 바탕과 motif의 색채를 반대로 하거나, 혹은 motif와 함께 색상전부를 바꾸는 등 여러가지 연구가 행해졌는데, 黑太子 시대부터 長子, 次子, 三子...와 아버지를 구별하는 부호가 더해지게 되었다. 그 밖에 가문에 명예라던가 기념해야 되는 것도 시대에 따라 紋章을 중앙(inescuccheon)에 더하던가, 4분할이나 2분할된 紋章을 다시 합문하는 것처럼 여러가지 방법이



[도 12.] Edward the Black Prince, 1379 (Costume and Fashion, p. 319)



[도 13.] Surcot와 도식 (Costume and Fashion, p.151)

사용되었다<sup>87)</sup>. 1297년 부인의 인장(Jacqueline, Gui de Bonteille)에는 그녀의 cotte위에 大와 친정의 紋章이 합문되어 있으며 우측의 十字四分劃, 좌측에 3개의 사선과 장자의 부호인 紋章이 합문되어 앞중앙에서 만나고 있다.

합문된 의복의 예로 잘 알려진 것으로 Louttrell(Louttrell Psalter, 1340)의 세밀화를 들 수 있는데 구체적 설명은 남녀 surcot에서 하겠다.

### 3. 남자 복식에 나타난 紋章

문장이 시문되어 있는 남자복은 쉬르꼬, 갠비슨(슈뽕), 타바드, 맨틀, 어깨보호장치를 들 수 있다.

#### 1) 쉬르꼬(Surcot)

문장은 뱃지나 모토와는 달리 남성의 군용 쉬르꼬, 방패, 투구, 마구 등에 사용되었다. 제1차 십자군 원정때 입었던 군복은 노르만이 1066년에 영국을 침공했을 때 사용했던 것들이었다. 그것들은 대부분 철 장식이 달린 가죽으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그러나 원정에서 돌아온 후인 12세기 초에 갑옷과 무기는 크게 변해서 chain-mail armor(쇠사슬 갑옷)의 시대를 맞게 되었다<sup>88)</sup>.

제2차, 제3차 원정에 참여하는 귀족과 기사는 쇠사슬로 만들어진 사슬갑옷(hauberk)과 chausses를 입었다. 그러나 시리아 별판의 따가운 햇볕이 광택낸 쇠에 비쳐서 착용자가 견디기 어려울 정도의 열을 발생시켰다. 따라서 그렇게 무장한 그들은 덮개가 필요하게 되었고, 이것은 뜨거운 태양 광선으로부터 갑옷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녹을 방지하는 역할까지 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흰 린넨이나 실크로 만들어진 쉬르꼬를 입게 되었다. 이것을 때로는 시클라스(cyclas)라고도 불렀다<sup>89)</sup>.

이 때 사용되었던 얼굴을 가리는 원통형의 투구와 흰 쉬르꼬는 착용자를 구별할 수 없게 만들었다. 이러한 불편을 막기 위해 채색된 방패 위에 어떤 구분이 될 수 있는 마크나 문장을 달자는 아이디어가 나왔다<sup>90)</sup>.

12세기에 처음으로 이탈리아에서 쉬르꼬에 문장을 장식하게 되었고 후에 프랑스에서도 사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영국에서는 헨리 2세 때 쉬르꼬가 채택되었으며 존왕대에 와서야 보편화되었다<sup>9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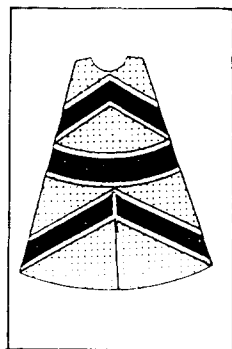
軍用 쉬르꼬는 [도 13]의 쉬르꼬보다 약간 넓었지만 거의 같은 디자인이었다. 부드러운 소재로 만든데다가 칼을 꽂기 위해 허리에 벨트를 둘렀기 때문에 엉덩이 부위에 잔주름이 많이 잡혔다. 쉬르꼬는 종아리 중간 정도의 길이로 내려왔는데 점차 무릎 길이가 되었다. 또 뒤보다 앞이 짧은 것도 있었다.

스코트랜드의 알렉산더 2세 인장(1214)과 글루체스터의 Robert Curthose, 솔즈베리의 William Longespée (1224), Temple Church의 기사 초상은 쉬르꼬의 초기 형태를 보여주었다. 이같은 초기 쉬르꼬는 대부분 흰색으로 만들어졌으나 13세기 초반에는 몇 기사 집단이 색이 있는 쉬르꼬를 입었다. 루이 9세의 40여명 되는 기사들은 초록색의 쉬르꼬를 입었다. 서정 시인 기사(troubadour-knight)였던 Wolfram von Eschenbach(1219)의 모습[도 14]에서도 쉬르꼬를 볼 수 있다. 그는 또한 'gules two axes endorsed argent(적색 바탕에 2개의 은색 도끼 모양이 새겨진)'의 방패와 깃발을 지녔다. 두개의 도끼는 크레스트로도 사용되었음을 볼 수 있다. 다른 서정 시인 Walther von Vogelweide가 지닌 문장은 'gules a birdcage or, and within it a bird vert : crest, a birdcage and bird as in arms(적색 바탕에 초록색 새 한마리가 들어 있는 금색 새장 한개이며, 크레스트는 문장에서 처럼 새장과 새)'이다<sup>92)</sup>.

이 때에 방패 위에 표현된 문장(charges)이 쉬르꼬에도 등장했다(최초의 예 : De l'Isle, Rampton, Cambs, effigy : Sir Robert de Septvans, Charlham, Kent, 1306). 쉬르꼬의 전 표면에 시문되어 '휠드(field : 문장이 시문되는 방패표면)'가 되었다. 이러한 목적에 의해 더 실질적으로 만들어질 필요가 생김에 따라, 쉬르꼬는



[도 14.] Wolfram von Eschenbach의 Surcot (Costume and Fashion, p. 320)



[도 15.] De l'Isle의 문장을 넣은 Surcot (C.&F., p. 320)

다른 소재로 만들어졌고 안감은 대비가 되는 색상이 이용되었다<sup>93)</sup>. 이러한 과정에서 쉬르코의 폭은 좁아져서 [도 13]과 [도 15]에서 보이는 것처럼 재단되었다. [도 15]의 쉬르코는 검정색 세브론 2개 사이에 금색 가로 줄이 있는 De l'Isle의 것이다.

[도 16]은 Louterell Psalter의 1340년 경의 문장을 나타낸 것이다. 부인과 머느리가 토너먼트를 위해 무장한 Geoffrey Louterell 경을 마중하는 모습으로 14세기 중반기의 기사복과 숙녀복에 대한 디테일을 보여주고 있다.

제프리 경은 그 시대의 甲冑에 '여섯 마리의 은색 새 사이에 푸른색 사선밴드' 문장이 장식되어 있는 쉬르코와 ailettes를 입고 있다. 그의 부인은 루터럴家の 문



[도 16.] Geoffrey Louterell경과 그의 부인, 1340년경 (C. & F., p.321)

장이 새겨진 부채꼴의 크레스트가 달린 금으로 된 시합 투구를 건내주고 있다. 방패와 말안장, 馬衣(말덮개)에도 같은 문장이 시문되어 있다.

14세기 전기의 쉬르코는 어깨, 가슴(가슴은 패딩됨), 허리는 꼭 맞았지만 짧아진 스커트 부위에는 여유가 있었다<sup>94)</sup>. 이것은 [도 17]에서 볼 수 있는데, 가슴에는 besants(금환 문양)가 있고 금색 바탕에 검정색 뇌문을 장식한 Almeric, Lord St. Amand(1347)의 것으로 쥬뽕(jupon)이라고 불리던 초기 형태의 하나이다. besant는 금환으로 비잔틴의 금화에서 유래된 것이다.



[도 17.] 초기의 Jupon, 1347년경 (C. & F., p.321)

## 2) 갬비슨<sup>95)</sup>(Gambeson, Haugueton, Jupon)

갑옷 아래에는 꼭 끼는 자켓이나 베스트를 입었다. 가슴은 Haugueton이라는 이름에서 유래되어 augueton이라 불렀는데<sup>96)</sup> 두타운 면 두겹 사이에 패딩되거나 누벼졌다(그 당시 누비는 것을 gamboised라고 했기 때문에 'Gambeson'이라고 하였다. 이 갬비슨은 11, 12세기의 군인들이 보통 갑옷 아래에 입었지만 칼이나 창 공격에도 견딜 수 있을 정도로 튼튼하게 처리되어 갑옷없어도 입혀졌다. 자켓이나 haugueton은 13세기에 방어복으로 무장군이 입었다. 14세기에는 보병들이 입었을 뿐만 아니라 쉬르코나 시클라스와 함께 기사의 평상복이 되었다<sup>97)</sup>.

이 때 haugueton은 유행하는 꼬따르디의 형태에 따랐으며, body armor없이 신체에 꼭 맞았는데 'Jupon'으로 알려졌다<sup>98)</sup>. 쥬뽕은 비싼 소재를 사용하여 그 위에 문장을 수 놓았다. 그 예로는 앞서 설명한 캔터베리의

흑황태자인 에드워드의 초상화를 들 수 있다[도 12 참조].

[도 18]은 Warwick의 네번째 백작인 토마스 Beauchamp와 그의 부인 즉 Ferrers경의 딸인 마가렛이다. Warwick에 있는 성 메리 교회의 동상의 모사본이다. 백작은 Beauchamp의 문장, 즉 '금색으로 botonée<sup>99)</sup>된 6개의 십자가 사이에 가로띠 장식을 한' 문장을 지니고 있다. 부인 맨틀위에도 이 문장이 반복되어 있다. 꼬뜨에는 친정 부친의 문장, 즉 붉은 색 바탕에 7개의 금색 mascles<sup>100)</sup>를 넣었다.



[도 18.] Thomas Beauchamp백작의 쥬벥과 그의 부인, 1406(C. & F., p.322)

15세기 초기 영국에서는 haugueton이나 쥬벥은 더 이상 군복으로는 사용되지 않았다. 그 당시 기사는 full plate armor(금속판 갑옷)를 착용하였다. 이때, 가슴과 어깨에 패드를 넣은 꼭 맞는 자켓이 'pourpoint'이라는 이름으로 일반인들에게 퍼졌다<sup>10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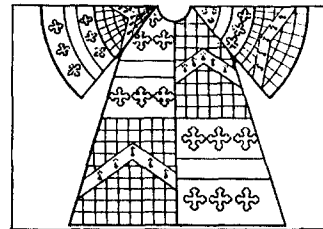
### 3) 타바드(Tabard)

tabard라는 것은 기사가 甲冑위에 입은 넓고 짧은 소매가 달린 上衣이다. 紋章官이 일종의 제복과 같이 입고 있던 紋章이 들어간 의복도 tabard라 했다. 중세 紋章官은 문장의 기록을 맡아 보았으며 토너먼트 개최를 선언하고, 또한 토너먼트의 선전과 경기의 심판등을 담당하였으며, 그밖에 제전이나 의식의 사회도 맡아 보았다<sup>102)</sup>.

영국에서의 타바드는 헨리 6세가 통치하는 기간동안에 군복 아이템으로 사용되었다. 왕족, 귀족, 기사 등이 甲冑 위에 입었으며 착용자의 문장으로 장식되었다.

초기의 군용 타바드는 John Wantele(1424)의 동상에서 볼 수 있다. William Fyndern(1444)의 타바드는 [도 20]과 유사한 기본적인 형태이다. 헨리 6세가 왕족 문장이 시문된 타바드를 입고 있는 모습을 그의 인장에서 볼 수 있다<sup>103)</sup>.

16세기 초기까지 타바드는 귀족이 토너먼트에 참석할 때나 군사관련 행사때 착용되었다. [도 19]는 Warwick(1381-1439)의 다섯번째 백작이었던 Richard Beauchamp가 입었던 타바드로서, British Museum의 Cottonian Ms<sup>104)</sup>이다. 이 문장은 1, 4쿼터에 Beauchamp家の '적색 바탕에 6개의 금색 십자가 사이에 가로띠'와 2, 3쿼터에 Newburgh家の '금색과 청색의 체크무늬와 검정색 무늬의 세브론'을 사분할로 배열하였다. 이 문장은 뒷길 부분과 케이프형의 소매에도 마찬가지로 시문되었다. 리차드 3세의 모습은 John Rous가 그린 'Warwick Roll'<sup>105)</sup>에서 볼 수 있는데 왕가 문장으로 시문된 타바드와 유사하다.



[도 19.] Tabard의 도식 (C. & F., p.3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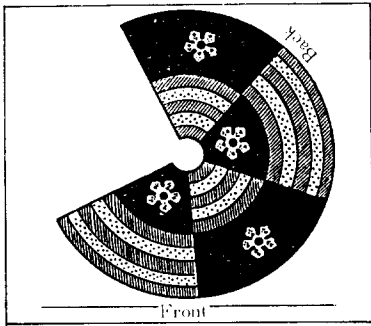
15세기 말에 군용 타바드는 사라졌으나 헤럴드(使者)의 공식 또는 비종교적 행사의 의례복위에 입는 公服으로 남게 되었다<sup>106)</sup> [도 20].



[도 20.] Sir William Dugdale의 Tabard (A Complete Guide to Heraldry, p.65)

#### 4) 紋章이 있는 맨틀(Mantle 또는 Cloak)

문장이 있는 맨틀이나 클락은 14세기 후반에서 15세기 동안 왕과 州의 귀족만이 입었던 특수한 옷이다. 모양은 원의 3/4에 해당하고 문장은 앞과 뒤에 2번씩 반복 배치된다. [도 21]은 펼쳐 놓은 문장 맨틀의 도식이다. 전체 원형을 넷으로 분할하여 Astley家의 '청색 바탕에 어민(ermine) 五葉花(azure a cinqfoil ermine)' 문장과 Harcourt家의 '적색 바탕에 2줄의 금색 띠가 있는 문장(gules two bars or)'을 역교체하여 배치하였다. 착용법은 오른쪽 어깨에서 고정되었으므로 오른쪽이 트였다<sup>107)</sup>.



[도 21.] Mantle의 도식(C. & F., p.327)

#### 5) 어깨, 목 보호장치(Ailettes)

Ailettes는 1275년경부터 1350년경까지 사용되었다. 기능은 어깨 부분과 목을 보호하는 것이었다. 보통 두꺼운 가죽이나 목재로 되었으나 후엔 철판으로 되었다. 사각형이었지만 때에 따라 원형, 오각형, 마름모꼴 등도 있다[도 9, 도 16 참조]. ailettes에 구멍을 뚫어 두가닥의 끈으로 chain mail에 고정시켰다. 기사는 전쟁에 나가기 전에 ailettes의 윗 가장자리를 끈으로 투구에 고정시켰고 머리와 어깨에 gable roof(박공지붕)를 만들어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했다. [도 16]에서 볼 수 있듯이 Ailettes에는 선면이 문장으로 뒤덮여 있다<sup>108)</sup>.

### 4. 여자 복식에 나타난 紋章

여자복으로는 슈르코, 맨틀, 꼬파르디, 사이드레스 가운데, 우벨랑드 등에 문장이 시문되어 있었다.

#### 1) 슈르코(Surcot)

프랑스 여성들이 처음으로 의복에 문장 넣는 것을

유행으로 만들었다. 초기의 모습은 1285년경의 한 프랑스의 필사본으로 발견할 수 있다. Nicolas de Kievraing경의 딸이자 Joifrois d'Aspremont경<sup>109)</sup>의 부인이 드레스를 입고 있는데, 아마도 그 해에 개최되었던 토너먼트에서 입었던 것 같다.

토너먼트는 매우 인기가 있어서 중요한 사교모임에 참석하는 다수의 세련된 여성들 즉, 참전한 기사의 친구, 친척들의 부인들을 캐료시켰다. 그들이 지지하는 기사가 이기는 것을 보고 싶어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그 관심은 많은 여성들로 하여금 친족범위를 넘어서서 참전자의 문장을 사용하게 만들었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녀들의 애뜻한 심정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혹은 자신들의 家紋으로 치장한 옷을 입음으로써 일반적인 장식 효과에도 기여했을 것이다.

[도 22]는 Aspremont 부인인데 필사본에서 따온 것이다. 그녀는 손목을 타이트하게 단추를 채운 소매가 달린 코트 위에 친정부친의 문장인 '금색 바탕에 은색과 적색의 사선띠 6개'를 시문한 슈르코를 입고 있으며 역시 방패의 상부에서도 같은 문장이 보인다. 머리에는 그 시대에 유행하였던 crespinnette(그물망)를 써서 머리를 감싸고 있고 barbette를 쓰고 있다.



[도 22.] Surcot를 입은 Aspremont경의 부인 (C. & F., p.329)

[도 16]에는 Geoffrey Louterell 경의 부인과 머느리인 두 여성의 모습이 보이는데 모두 슈르코를 입고 있다. Louterell 부인의 슈르코에는 부친의 紋章인 '금색 바탕에 초록색 사자'가문과 Louterell의 것을 세로로 나누어 섞은 문장이 있다. 이 사자의 모습은 문장에 사

용되는 동물이 필드에 알맞게 변형되는 방법을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되고 있다. 즉 쉬르꼬(시클라스)의 앞면은 가슴 부위가 좁고 중앙에서 세로로 분할되므로 동물의 머리 뒤쪽이 왼쪽 소매진동선(the left arm-opening)에 의해 잘려 나간다. 이것은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지만 사자가 큰 도안으로서 의복의 반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꼬리는 뒷면의 왼쪽까지 부드럽게 연장된다. Louterell 문장인 ‘은색의 사선(bend argent)’은 부인의 오른쪽 어깨 견장뼈에서부터 시작되어 오른쪽 소매진동선을 지나서 스커트의 세로축 부위로 경사져 무릎 아래에서 끝난다. 새마리의 martlet(네째아들의 문장, 새)은 은색 사선에 맞추어 배열되어 있다.

Louterell의 방패를 들고 있는 부인은 Geoffrey Scrope경의 딸이자 Louterell경의 며느리로 그녀의 쉬르꼬에는 Louterell家와 Scrope家의 문장이 있다. ‘청색 바탕에 금색 사선과 은색의 (3 기둥)라벨’이 배치되어 있다. 그러나 부친의 방패에는 5기둥의 라벨이 보인다. Scrope家의 금색 사선은 그림에서 아주 선명하게 보인다. 두 여인 모두 당시 유행하던 꼬따르디(cotehardie)를 입고 있다. 젊은 여성은 적·흑색의 후드를 달고 있고 소매에는 어민을 장식했다<sup>100)</sup>.

2) 맨틀(Mantle)

맨틀은 13세기 후반에 문장을 전시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紋章의 시문은 항상 맨틀 뒤쪽의 중앙에서 나뉘어지는 수직선(pale line)이 등에서부터 보이도록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앞에서는 대부분 거꾸로 시문된 것을 본다.

[도 23]은 1280년 경부터 16세기 중반까지 입혀졌던 반원형의 문장 맨틀의 전개도이다. 맨틀은 꼬따르디나 sideless gown(쉬르꼬 두베르)에 문장이 사라진 후, 적어도 50여년 동안, 문장이 시문되는 유일한 여성용 의복으로 남았다. 이것은 이 시기 전체동안 입혀졌던 전형적인 맨틀로 1470년 경의 Enfield to the memory of



[도 23.] Mantle의 도식(C. & F., p.330)

Lady Tiptoft의 동상에서 나온 것이다. 그녀는 에드워드 찰튼 경의 딸로서 계승자였다. Lady Tiptoft의 맨틀은 부친의 문장을 시문했는데 그 배열은 문장에서 가끔 접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보여준다. 네덜란드의 고귀한 출신인 어머니의 신분 때문에 [도 23]에 나타나 있듯이 ‘은색 테두리 안에 영국의 적색바탕에 금사자 새마리를 넣은’ 문장이 텍스터 쪽에 새겼고, 찰튼의 ‘금색 바탕의 적색 램펀트 사자’는 시니스터 쪽에 시문되어 있다. ‘bordure’(테두리)는 관찰되는 것처럼 맨틀의 텍스터 두 쪽에만 둘러져 있으므로 중앙 세로선과는 멀리 있다.

quarter-circle에 맞도록 도안된 것이 주목할 만하다. 즉 반원형 맨틀에 배치될 때는, 네덜란드 가계의 사자 새마리와 찰튼의 라이온 램펀트의 숨겨진 다리의 경우처럼, 보통은 원주에 평행한 선으로 분할되어 배치된다. 길어진 몸체와 짧아진 다리의 비정상적 모습은 맨틀이 착용자의 어깨에서 여며 발 아래로 늘어져 주름이 잡히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는다<sup>101)</sup>.

3) 꼬따르디(Cotehardie)

14세기 중기에, 여성복으로 쉬르꼬가 유행에서 밀려 나면서 문장은 꼬따르디에 새겨지게 되었다. 가끔 여성은 부친의 문장만을, 또 어떤 때는 남편의 문장만을, 어느 때는 두가지 문장(부친과 남편의 문장)이 모두 사용되었다.

의복의 동체 부위에 문장을 채택할 때는 쉬르꼬에서와 마찬가지로 동체의 윗부분이 좁았으므로 紋章의 형태를 변형시켜야 되는 어려움이 생긴다. 문장 도안의 아랫부위는 스커트의 폭에 따라 넓어진다. 단독 문장이 사용될 경우, 도안은 꼬따르디의 앞과 옆면을 차지한다.



[도 24.] 문장이 있는 Cotehardie (C. & F., p.3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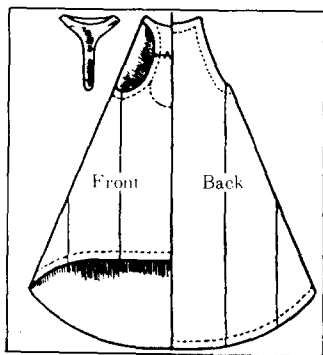


合紋(impaied coat)인 경우 앞의 중앙에 세로선(per plae)이 생기게 되므로 문장은 뒷면으로까지 연장된다. 맨틀은 합문방법으로 입혀질 수도 있다. [도 24-①]의 부인이 입은 꼬따르디 위에서 Cobham家の '세 마리의 흑색 사자'가 '금색 세브론 위에 있는 붉은 색 바탕의 문장'과 Courtney家の '금색 바탕에 3개의 작은 원과 청색 라벨이 있는 문장'으로 되어 있다.

[도 24-②]의 부인이 입고 있는 꼬따르디는 합문의 변형을 나타낸 것이다. 꼬따르디는 항상 맨틀 없이 입었다. 이런 경우 합문은 앞면에 시문되어 있고 뒤에 반복되는데 필드 자체는 옆에서 만난다<sup>112)</sup>.

#### 4) 사이드레스 가운(Sideless Gown 또는 Surcot-ouvert)

문장이 있는 사이드레스 가운(sideless gown)은 [도 25]의 도식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재단되었는데 가끔은 맨틀없이 입었다. 14세기 후기부터 헨리 7세 통치기간(1509년)까지 이 의복은 상류층 여성들의 公服 또는 궁정복(official or state dress)으로 입었다. 문장은 스커트의 앞과 옆에 새겨져있다.



[도 25.] Sideless Gown의 도식  
(C. & F., p.234)

합문된 문장이 시문되어 있는 사이드레스 가운을 입은 예로서는 1410년 경의 웨일즈 공주인 마가렛을 들 수 있다. 그녀는 웨일즈 왕자인 Owain Glendower의 부인이자 Flintshire의 David Hanmer경의 딸이기도 하다. 그녀 남편의 합문된 방패에서 텍스터에는 Glendower家の 금색과 적색으로 쿼터링하여 네마리의 사자(passant guardant)를 역교체(counterchanged)하였고, 시니스터에는 Hanmer家の 금관을 쓴 청색 사자 두마리를 은색 위에 배치시킨 것이다. Glendower家の 문장은 왕자의 사이

드레스 가운데 시문되었고 처가 장인의 것은 맨틀에 각각 시문되었다. 또 공주의 맨틀위에 남편인 Glendower家の 문장이 배치되고 있었다<sup>113)</sup>.

#### 5) 우펠란드(Houppeland)

1380년부터 1450년경에 특색있는 gown인 houppeland가 나타났다. 형태는 어깨부분은 맞았으나 스커트 부분은 여유있으며 허리에 belt를 묶었다. 우펠란드의 칼라는 컷가까지 올라 갔으며, 소매는 바닥까지 끌릴 정도로 길었는데 수구에는 요철, 나뭇잎 모양, scallop 등 여러가지 형태로 재단을 하였다<sup>114)</sup>.

영국에서는 에드워드 3세 말기에 귀족의 장식적인 긴 우펠란드와 家紋이 전체에 시문된 여성용 드레스가 소개되었다[도 26]. 착용자 자신이나 연인의 이름 칩글자를 coronet에 장식하였다. 가문이나 개인 모토를 로브나 소매의 가장자리에 자주 수를 놓았고 때론 리본에도 놓았으며 옷 전체에 수 놓기도 했다.



[도 26.] Houppeland(C. & F., p.247)

## VI. 結 論

12세기 기사들의 문화와 더불어 시작된 紋章은 방패 위에 그려졌으며, 12세기 말에는 家門을 나타내는 것으로 세습되었고 13, 14세기를 통해 급격한 발전을 보았다. 紋章은 그후 방패를 비롯해 남녀 의복과 武具와 馬衣 그리고 旗幟에 이르기까지 크게 유행되어 귀족, 기사는 물론 시민 계급사이에서도 문장을 소유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13세기에는 의복등에 parti-color와 合紋

형식이 반아 들여져 신분상징과 장식의 목적을 둘다 동시에 겸하게 되었다.

의복 위에 紋章이 나타난 것은 중세 특유의 것이라 할 수 있다. 그 기원은 십자군 기사가 시리아의 강한 햇빛과 사막의 먼지를 막고, 습기로부터 갑옷이 손상하는 것을 막기위해 surcot, 일명 cylas를 갑옷위에 입었던 것에서 부터라는 것이 일반적인 說이다. 그러나 쉬르꼬는 13세기 초까지 흰색마, 또는 흰색견으로 만들어 졌으므로 각기의 군단을 식별하기 위해 쉬르꼬위에 기사의 문장을 붙이도록 되었을 것이다. 다른 한편 전신을 덮는 甲冑가 고안됨에 따라 전장에서, 경기장에서 신분을 밝히기 위해 방패에 붙인 것과 같은 문장이 surcot나 jupon(후에 pourpoint)류의 의복위에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이처럼 12세기 하나의 표식체계로 사용된 紋章은 왕실, 귀족, 기사 등 상류층에서 권위의 상징으로 쓰였으며, 또한 중세 유럽인에게는 개성화와 집단화를 추구하는 불가사의한 도구였다. 그러나 20세기 현대에는 기업체 등에서 상품의 품질보증과 기관, 단체를 상징하는 badge와 旗 등과 같이 일종의 symbol mark화 되어 개인으로부터 국제기관에 이르기까지 현존하는 것은 문장에 대한 심미성과 상징성에 대한 뿌리깊은 전통에 기인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 참 고 문 헌

- 1) 拙稿; 西洋紋章의 象徴性에 關한 研究, 한국의류학회, 제14권 제3호, pp. 196~207, (1990).
- 2) William Newton; A Display of Heraldry, London: William Picker, p. 21. (1846).
- 3) Stefan Oliver; An Introduction to Heraldry, London: Apple Press Ltd., p.22, (1987).
- 4) 菅原珠子; 西洋의 紋章과 服飾, 服飾美學 第5號, pp. 1~2.
- 5) Ibid.
- 6) Ibid.
- 7) A. C. Fox-Davies; A Complete Guide to Heraldry, New York: Bonanza Books, pp. 14~15, (1978). 프랑스 Normandy의 소도시 Bayeux에 있는 Musée de la Reine Mathilde에 보존되어 있는 길이 70cm, 너비 50cm의 자수 직물: 마틸드 왕비의 작품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노르만디인들이 영국정복(1066년)을 72장면으로 수를 놓은 것. 등장인물이 600여명이상, 700마리의 동물, 37개의 건물, 41개의 배와 보트등을 수 놓았다 함.
- 8) Stefan Oliver; Op. cit., p. 10.
- 9) 元井能; 西洋服飾文化史, 東京: 光生館, p. 48, (1959).
- 10) 樺山紘一; 紋章學, 一個と群の 標識術, 經濟評論 4月號, pp. 138~139, (1981).
- 11) 奥平志づ江; 紋章の比較研究, 文教大學女子短期大學部 研究紀要 第28集, p. 34, (1984).
- 12) A. C. Fox, Davies; Op. cit., P. 15.
- 13) 金, 銀, 鉛, 蠟 등으로 만들어진 왕의 인장, 개인의 인장 등이 있으며, 크기는 시대에 따라 달라 12, 13세기경은 직경 8~9cm 정도이며, 본인의 용모와 방패, 문장등을 도안으로 한 것을 볼 수 있다.
- 14) G. Demay; Le Costume d'après les sceaux, Paris, p. 142, (1880).
- 15) Ibid., p. 145.
- 16) William Newton; Op. cit., p. 15.
- 17) 森護; 西洋의 紋章とデザイン, 東京: ダヴィッド社, p. 37, (1982).
- 18) Ibid.
- 19) アーサー王の死; 筑摩書房, 世界文學大系, 中世文學集 2.
- 20) Ibid.
- 21) Claude Blair; European Armour, London: B. T. Bloomsbury Books, p. 31, (1986).
- 22) Ibid.
- 23) A. C. Fox-Davies; The Art of Heraldry, London: Bloomsbury Books, p. 31, (1986).
- 24) Ibid., p. 33.
- 25) 拙稿; Op. cit., pp. 200~204.
- 26) 森護; Op. cit., p. 92
- 27) C. Wilfrid Scotte Giles; The Romance of Heraldry, London, p. 45, (1929).
- 28) Ibid., p. 47.
- 29) 菅原珠子; Op. cit., pp. 8~9.
- 30) 高橋正人; 圖說シンボルデザイン -意味と歴史, 東京: ダヴィッド社, p. 71, (1981).
- 31) 菅原珠子; Op. cit., pp. 13.
- 32) タキトウス年代記; 筑摩書房, 世界古典文學全集 22.

- 33) 高橋正人 ; Op. cit., p. 111.
- 34) A. C. Fox, Daves ; Op. cit., p. 176, (1978).
- 35) 管原珠子 ; Op. cit., p. 11.
- 36) William Newton ; Op. cit., p. 82.
- 37) Herbert Norris ; Costume and Fashion, vol. II, London, p. 300, (1927).
- 38) Ibid.
- 39) Ibid., p. 301.
- 40) Ibid.
- 41) J.P. Brooke-Little ; A complete Guide to heraldry, London : Obris Publishing, p. 140, (1985).
- 42) Ibid., p. 141.
- 43) Ibid.
- 44) Ibid.
- 45) Ibid. p. 143.
- 46) Henry Gouch & James Parker ; A Glossary of Terms Used in Heraldry, London : Gale Research Co., p. 380, (1966).
- 47) J. P. Brooke-Little ; Op. cit., pp. 144~145.
- 48) P. Brooke Little ; Boutell's Heraldry, London & New York : Frederick Warne Co., Ltd., p. 70, (1970).
- 49) 森護 ; Op. cit., p. 95.
- 50) 管原珠子 ; Op. cit., p. 15.
- 51) 拙稿 ; Op. cit., p. 18~19.
- 52) Col. A.G. Puttock ; A Dictionary of Heraldry and Related Subjects, New York : Arco Publishing Inc., p. 52, (1985).
- 53) 森護 ; Op. cit., p. 96~98.
- 54) A. C. Fox-Davies ; Op. cit., pp. 237~238, (1978).
- 55) J. P. Brooke-Little ; Op. cit., p. 179, (1985).
- 56) 管原珠子 ; Op. cit., p. 15.
- 57) 森護 ; Op. cit., pp. 98~99.
- 58) 管原珠子 ; Op. cit., p. 14.
- 59) Ibid., p. 15.
- 60) H. Norris ; Op. cit., p. 304.
- 61) Ibid.
- 62) Ibid.
- 63) P. Brooke-Little ; Op. cit., p. 76, (1970).
- 64) A. C. Fox-Davies ; Op. cit., pp. 237~238, (1978).
- 65) Ibid., p. 233.
- 66) H. Norris ; Op. cit., pp. 305~306.
- 67) Ibid., p. 306.
- 68) Ibid.
- 69) Ibid.
- 70) Ibid.
- 71) A. C. Fox-Davies ; Op. cit., pp. 50~54, (1978).
- 72) mail shirts라고도 하며 12세기에서 14세기경의 무릎까지 오는 쇠사슬 갑옷.
- 73) 갑옷의 무릎보호장치.
- 74) A. C. Fox-Davies ; Op. cit., pp. 54, (1978).
- 75) 중세 초기의 투구로 상부가 산모양의 원통형으로 머리 전체를 덮는 투구.
- 76) 4가지 끝이 각각 십자로 된 십자형이 전체에 흩어져 있는
- 77) A. C. Fox-Davies ; Op. cit., p. 55, (1978).
- 78) Ibid.
- 79) steel cap으로 14세기경의 둥글거나 뾰족한 투구.
- 80) 팔꿈치에서 손목까지를 보호하는 갑옷의 팔부분.
- 81) 쇠사슬, 판금으로 만든 중세의 긴 장갑.
- 82) 管原珠子 ; Op. cit., p. 6~7.
- 83) Henry Shaw ; Dress and Decorations of the Middle Ages, Vol. I, London, (1843).
- 84) H. Norris ; Op. cit., p. 322.
- 85) 管原珠子 ; Op. cit., p. 8.
- 86) Ibid.
- 87) 拙稿 ; 유럽 紋章에 關한 研究, 安東大學 論文集 第11號, pp. 379~381, (1989).
- 88) H. Norris ; Op. cit., p. 318.
- 89) P. Brooke-Little ; Op. cit., p. 23.
- 90) H. Norris ; Op. cit., pp. 319~320.
- 91) Ibid., p. 320.
- 92) Ibid.
- 93) Ibid., p. 321.
- 94) Ibid.
- 95) Haburgeown, Jupon, Gipon, Gypown, 또는 Gypeil이라고도 하며, 나중에는 pourpoint이라 부른 남자 누비자켓.
- 96) H. Norris ; Op. cit., p. 322.
- 97) Ibid.
- 98) Ibid.
- 99) 세 잎 모양의 십자가.
- 100) 안의 빈 마름보꼴.
- 101) H. Norris ; Op. cit., pp. 322~323.

- 102) Roger Milton ; *Heralds and History*, London : David & Charles, p. 12, (1978).
- 103) H. Norris ; *Op. cit.*, p. 323.
- 104) 이 MS는 1485-1490년 사이의 John Rous의 작품이다. 모든 디테일은 묘사된 사건의 (실제)날짜와는 관계 없이 이 시기에 해당된다. 헨리 5세는 그가 죽은 1422년에는 없었던, 적어도 60년 이후에나 사용된 크라운 패턴을 입고 있는 것이나 1440년 이전에는 없었던 형태의 타바드를 입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는 것을 보면 재미있다.
- 105) 현재 대영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으며 새끼 송아지 가죽으로 만든 두루마리에 문장을 기록한 것이다. 거기에는 왕족이나 귀족의 문장이 들어간 의복, 예를 들면 남자는 *jupon*이나 *tabard*, 여자는 *cotehardie* 등을 입은 것을 볼 수 있으며, 그들이 소속한 가족의 記章으로 사용한 동물이 인물 옆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 106) H. Norris ; *Op. cit.*, P. 324.
- 107) *Ibid.*, pp. 327~328.
- 108) *Ibid.*, p. 323.
- 109) 멜보른에 있는 The National Gallery of Victoria의 'Aspremont Horae'
- 110) H. Norris ; *Op. cit.*, pp. 328~330.
- 111) *Ibid.*, pp. 330~331.
- 112) *Ibid.*, pp. 331~332.
- 113) *Ibid.*, pp. 332~333.
- 114) James Laver ; *Costume and Fashion*, London : Thames and Hudson, p. 64, (1969).